

오늘 설교 본문은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 사도는 당시 고난 받고 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라는 뜻에서 후에 ‘맹세하다’라는 뜻으로 변화된 단어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세라고 번역된 ‘오므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 혹은 사람 간에 하는 맹세로 번역되었습니다.(참조, 신 10:20, 레19:12, 민30:2, 신 23:32)

성경 안에는 맹세를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신 것은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은 이 맹세를 교묘하게 바꾸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신용과 진실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무언가를 걸고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되기에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는 맹세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길 원합니다.

첫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할 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약속을 하는 그 당시에는 100%의 진심을 담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약속을 지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에 대해, 인간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수록 나의 작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 뒤에 중요한 말씀이 따라 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 간의 맹세에는 자신의 말에 진실함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그저 그렇다, 아니라고 말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진실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씀과 뒤 부분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더 크게 보아도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맹세를 통해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서약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2/10(토)	12/11(주일)
고전15-16	고후1-5	고후6-9	고후10-13	갈1-4	갈5-6,엡1-2	엡3-6

QT

이번 주 QT 말씀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2/10(토)	12/11(주일)
시39:1-13	시40:1-10	시40:11-7	시41:1-13	전1:1-11	전1:12-18	전2:1-11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자신이 경험한 헛된 맹세나 약속에 대해 나누어 주세요.
3. 믿음의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결단한 것을 나누어 주세요.